

제88주년 3·1절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여든여덟 돌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우리는 삼천리 방방
곡곡에 물결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날 우리 선조들은 지역과 계층·종교·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제의 총칼에 맞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떨쳤습니다. 자유·평등·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대의를 밝혀 약소 민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일으킨 국채보상운동 100년,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일제의 침략상을 알리고 순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절의 의미가 더욱 뚜렷한 해입니다.

뜻 깊은 이날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 당시 우리는 거국적으로 단결했고, 대의명분도 정당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선열들은 해방의 그날까지 피땀 어린 투쟁과 눈물겨운 희생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국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정세도 말로는 민족자결의 대의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힘에 의해 좌우되는 제국주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안전과 자존을 지킬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군이 있고, 세계 12번째의 경제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도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지금, 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전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설사 정복한다 하더라도 지배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력과 역사의 대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서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 없는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를 주도할 만한 충분한 도덕적 명분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지켜졌고, 힘이 없을 때 동북아시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적 방위 역량을 키우고, 남북관계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된 2·13합의를 성공적으로 이

행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청문회에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아야 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해도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아직도 일본의 일부 자치단체는 러·일전쟁 당시 무력으로 독도를 강탈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난날의 과오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나아가서는 역사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문화 등에서 이미 단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국 관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진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같은 문제는 이제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국제사회에서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는 선례를 따라 성의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애국선열들께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

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일협정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청구권자금 지급이 미진했던 데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재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실상을 밝히고, 민족과 나라를 팔아 치부한 재산을 그 후손들까지 누리는 역사의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과거 식민지 역사에서 고통 받은 분들의 맺힌 한을 다소나마 풀어드리고,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정의와 양심이 살아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맥박 속에는 선열들의 드높은 기상과 대동단결의 정신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딸들에게 자랑스러운 내일을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